중점 확보 대상 국비 1769억원

최경식 남원시장, 발품행정과 이용호 의원과 원팀 대응… 전년대비 3.7% 증가

민선8기 남원시가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가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은 총 3,614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13%)이 증가하였다. 이 중 시가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확보한 국비는 1,769억원으로, 올해 대비 64억원(3.7%)이 증가한 수치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되고, 국회단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 순감 등 순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는 평가이다.

그 이면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최 시장은 취임 직후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세종사무소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예산전략센터를 개소하고, 매주 부처와 국회 출장을 진행하며 발품행정을 직접 선보였다.

이에 더해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경식 시장과 원팀 대응에 나선 결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시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총사업비 기준 전년대비 673억원(44.8%) 증가하며 국가예산 확보액 증가를 이끌었다.

남원시가 각 분야별 확보한 중점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23년 국비 35억원(총사업비 105억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30억원(79억원),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72억원(279억원) 등 33개 사업 356억원을 확보하여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5억원(190억원),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3억원(30억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1억원(150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이 사업들은 하반기 부처 설득과정과 국회단계 심의 대응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그 의미가 크다. /남원=김기두 기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남원시 '귀농귀촌인 · 지역민 화합한마당' 성료

'2022년 귀농귀촌인 · 지역민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26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더불어 사는 농촌마을을 만들고자 관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 의장,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등의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귀농귀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교육'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었다.

문화공연으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으로 구성된 '마이웨이' 색소폰 동아리와 보절면 '천황봉 난타 동아리'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 껏 끌어올려 행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성과공유 △귀농귀촌단체 활동 발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족욕 및 아로마테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귀농귀촌 활동 사진전과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물품 등을 전시하여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합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관촌면 새로운 랜드마크 체육문화센터 준공

지상 2층 규모 다목적 체육관

임실군이 관촌면 등 북부권 주민들의 체육·문화시설인 체육문화센터를 준공했다.

군은 27일 심 민 임실군수와 이성재 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남궁세창 임실교육장,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김태진 임실문화원장, 동호인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 행사로 난타 공연과 팝페라, 판소리 등 축하공연과 함께 열렸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는 관촌면 구시장 부지에, 2019년부터 총사업비 7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되어 지어졌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복합 거점 공간이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다목적체육관(691㎡), 마주침공간(115㎡), 동아리실(76㎡), 사무실(66㎡), 세미나실(135㎡)로 구성됐으며, 2층은 체력단련실(148㎡), 댄스교실(98㎡), 음악교실(77㎡) 등을 갖추어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의회, 폭설 복구 적극 나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순창에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폭설 복구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를 방문하여 폭설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위험한 곳은 복구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4일 신정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회사무과 직원,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순창읍 시가지의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인계면에 거주하는 최용수 의원은 직접 포크레인으로 마을 골목골목마다 눈 치우기 작업을 하는 등 폭설 속에서 지역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됐다.

또 26일에는 신정이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동계면과 적성면, 인계면, 유등면 지역의 폭설피해 현장을 돌며 농가를 격려하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양원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기업체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나서

최경식 남원시장이 27일 남원시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들과 상생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치2 농공단지내 ㈜지에스판넬과 노암2 농공단지에 입주한 ㈜지엠에프 기업을 방문해 시와 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기업인들은 생산 및 근로 여건과 매출 현황 등을 소개했고, 금리인상, 원자재, 구인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했으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문제를 짚으며 장기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최 시장은 "법무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입주 기업이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한편,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2023년 연초에도 관내 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민원똑똑' 오픈

남원시가 남원시청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남원시청)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오픈한다.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인 챗봇은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민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로, '남원시 민원똑똑'은 시민들이 평소 자주 묻는 시정 관련 정보를 △교육 △복지 △경제·생활 △농업 △환경·수도 △차량·교통 △건설·도시 △보건·의료 △안전·재난 등 분야별로 제공한다.

남원시 민원똑똑은 남원시청 누리집(www.namwon.go.kr)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남원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남원시는 내년 초 민원인이 접수한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과 인?허가 민원 기간만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 알림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2022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순창군은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10억9,400만원을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순창군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 및 산간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군민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순창군의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692명이며, 총 지급면적은 1,321ha이다.

총 지급액은 11억5,100만원으로 올해 10억9,4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부족예산 5700만원은 산림청에 추가예산을 요구하여 2023년 4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기관 표창 수상 쾌거

임실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은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수상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도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시?군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만족도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 및 지적 관련 분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임실군은 지적측량 분야,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주소 업무, 공간정보 업무 및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업무 등 5개 항목 11개 분야에서 재차 업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심 민 군수는 "토지정보업무 분야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편의 위주의 토지정보 행정 추진을 위해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